즉시 배포용: 2022년 6월 10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프로젝트 최종 단계 진입으로 95억 달러 규모의 JFK 공항 신규 1터미널 공사 올해 여름 착공 발표

*재정 관련 단계가 완료되어 **1**단계 프로젝트 마침표*

***12**월 항만청 이사회 리스 승인*

*신규 **1**터미널은 연방 항공청으로부터 최종 환경 승인 완료*

*항만청 이사회는 신규 **1**터미널의 제**1** 투자자 신규 선정 승인*

*완공 후 **JFK** 공항 최대 터미널이 완성되며 **6,000**개의 건설직 일자리를 포함해, **10,000**개 일자리 창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JFK 국제공항(JFK International Airport) 신규 1터미널(New Terminal One) 건설을 위한 9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올 여름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단계 프로젝트 재정 단계가 완료를 포함해 현재 재정 및 환경 승인을 얻은 상태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첨단 터미널을 JFK에 마련하는 것은 뉴욕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비전의 핵심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대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완공 후 뉴욕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는 승객 경험 개선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실현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를 전합니다."

11월 Hochul 주지사는 항만청 이사회가 JFK 공항 남쪽에 세계적 수준의 터미널 건설을 위해 신규 1터미널 컨소시움 설치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 항만청 이사회는 프로젝트 1투자자를 투표로 선정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터미널 건설 경험을 가진 글로벌 공항 운영자인 페로비알(Ferrovial)은 칼라일 글로벌 인프라 펀드(The Carlyle Global Infrastructure Fund)의 신규 1터미널 지분 51%의 96%를 인수하며, 이번 컨소시엄은 첨단 터미널 설계, 건설, 운영을 위해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1터미널 공사가 올 여름 착공한다는 발표는 Hochul 주지사, 항만청(Port Authority), 델타 항공(Delta Air Lines)이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 C 터미널 개장으로 홀 뉴 라구아디아(Whole New LaGuardia) 대부분이 완공된지 10일 후 이루어졌습니다.

Rick Cotton 항만청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JFK 공항 신규 1터미널 1단계 재정 마련 완료는 5년 만에 거둔 쾌거입니다. 페로비알, JLC 인프라스트럭쳐 그룹(JLC Infrastructure Group), 율리코(Ullico), 칼라일(Carlyle)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최고 수준의 터미널을 건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터미널은 JFK 최대 규모의 국제 터미널로 지역 회복을 지원할 9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Kathy Hochul 뉴욕주 주지사, Chuck Schumer 상원 여당 원내대표, Polly Trottenberg 미 교통부 차관, Gregory Meeks 하원의원, Donovan Richards 퀸즈 자치구 대표, 워싱턴 연방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및 2지역, JFK 공항의 모든 임직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성과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Kevin O'Toole 항만청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구아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이 완공되고 뉴어크 리버티 공항(Newark Liberty Airport) 신규 A 터미널 완공이 가까워진 가운데, JFK 신규 1터미널 추진을 골자로 하는 오늘의 발표는 세계적 수준의 공항을 지역에 만들겠다는 항만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민간 투자자의 전례 없는 투자는 지역의 미래와 능력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 귀감이 될 최고의 프로젝트를 실행 및 완공할 수 있습니다."

JFK의 신규 1터미널은 현재 1터미널, 2터미널, 과거 3터미널 부지에 건설되며, JFK 남쪽 지구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240만 평방피트 규모의 신규 터미널은 완공 후 JFK의 최대 규모 터미널이 되며, 새로운 라구아디아 공항의 터미널을 모두 합친 것과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신규 터미널 건설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도착 및 출발 홀과 첫 번째 게이트 세트를 포함한 1단계는 2026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2030년 3단계가 모두 완공되면, 새로운 1번 터미널에는 23개의 새로운 게이트와 밝고 통풍이 잘 되는 체크인 홀 및 도착 공간이 설치되어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항 터미널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뉴욕에서 영감을 받은 식당 및 소매 편의시설은 물론 라운지, 실내 녹색 공간 및 가족 친화적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1번 터미널은 지속 가능성과 보안의 최신 발전을 통합하고 뉴욕만의 독특한 감성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Luke Bugeja 페로비알 항공(Ferrovial Airports) 사무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뉴저지 항만청, JLC 인프라(JLC Infrastructure), 율리코(Ullico), 칼라일(Carlyle)과 협력하여 John F. Kennedy 공항에 세계적 수준의 공항 터미널을 개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내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동량이 많은 지역과 국제적 관문이 위치한 지역사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져올 것입니다."

신규 제1터미널청(Officer of The New Terminal One) 대표 겸 최고경영자인 Gerrard P. Bushell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신규 제1터미널 컨소시엄의 주요 스폰서로 페로비알이 합류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페로비알은 최고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공항 개발자 및 운영자로 인프라 프로젝트의 개념 자체를 확장하는 한편 이번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증대할 것입니다. MWBE 참여에서 지역 인력 개발, 지속가능성 강화에 이르기까지 신규 1터미널 프로젝트는 미래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1번 터미널은 공항의 다른 세 가지 주요 변화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JFK Millennium Partners가 JetBlue의 기존 5번 터미널과 원활하게 연결될 공항 북쪽에 건설할 최첨단 새로운 6번 터미널의 39억 달러 개발 프로젝트는 8월에 항만 당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말 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델타 항공과 JFK 국제 항공 터미널이 주도하는 15억 달러 규모의 4번 터미널 확장 공사가 봄에 승인되었으며 현재 공사 중입니다. 또한, 터미널을 운영하는 American Airlines이 주도하는 JFK의 8번 터미널 4억 2,500만 달러 확장 공사는 2019년 12월에 시작되었으며 터미널을 운영하는 British Airways과 7번 터미널에서 8번 터미널로 이전할 터미널은 새로운 터미널 6을 위해 철거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총 180억 달러 규모의 JFK 국제공항 개발 사업이며 엄청난 규모의 민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합니다. 항만청 자본 투자 29억 달러는 전체 JFK 재개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4개 프로젝트에 150억 달러 이상의 전체 민간 투자를 고려할 때 민간 투자를 5:1 이상의 비율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1터미널 건설은 6,000개의 건설 일자리를 포함해 최소 1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페로비알을 비롯한 신규 1터미널 파트너들은 또한 프로젝트 참여 중 최소 30퍼센트를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에 할당하여 지역 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항만청의 목표를 추진합니다.

페로비알은 1998년부터 항공 산업에 참여하여 20년 이상 동안 미국, 호주, 칠레 등 전 세계에서 공항 33개에 투자, 개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공항 네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Heathrow Airport)의 지분 25%를 보유하여 공항의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사업 파트너이며, 글라스고, 애버딘, 사우스햄튼 공항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YDA 그룹(YDA Group)으로부터 터키 달라만 국제공항(Dalaman International Airport) 지분 60%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로비알은 항공 및 여행 부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파트너, 지역 지도자, 지역사회와 건설적인 관계를 맺어온 훌륭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페로비알은 지금까지 NTO 및 항만청이 진행해 온 사업을 이어받아 완공할 것입니다. 이 기업은 1998년부터 항공 산업에 참여하여 20년 이상 동안 미국, 호주, 유럽, 영국, 칠레 등 전 세계에서 공항 33개에 투자, 개발,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페로비알은 현재 영국 공항 네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드로 공항(Heathrow Airport)의 지분 25%를 보유하여 공항의 핵심 이해관계자이자 사업 파트너이며, 글라스고, 애버딘, 사우스햄튼 공항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페로비알 공항(Ferrovial Airports)은 전자 수직 이착륙(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eVTOL) 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설계, 건설, 운영하기 위해 페로비알 버티포트(Ferrovial Vertiports)를 설립했습니다. 페로비알 공항은 YDA 그룹으로부터 터키 달라만 국제공항 지분 60%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JFK Airport 재개발

2018년에, JFK 재개발 지역사회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Gregory Meeks 대표와 퀸즈 자치구 대표 Donovan Richards가 공동 의장으로 사우스이스트 퀸즈, 사우스웨스트 퀸즈, 록커웨이 및 나소 카운티 웨스턴 지역 일부의 지역사회 출신인 선출된 공무원, 지역사회 이사회, 기업 및 비영리 단체, 시민 단체 및 성직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립 이래 이 위원회는 항만청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해 현지 이해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피드백을 요청하고 지역 기업, 소수자 및 여성 소유 기업 및 구직자들에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이 터미널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모든 작업 범주에서 30% MWBE 계약 목표에 대한 항만청의 국가 주도적 약속을 진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JFK 재개발 프로그램의 모든 측면에 걸쳐 현지 기업을 위한 기회에 대한 특별 중점 노력이 포함되며 이 프로젝트는 전체 프로젝트 노무 계약에 따라 노동 조합이 건설할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우선시하는 다른 지역사회 개발 이니셔티브는 현지 거주민을 위한 일자리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 및 개발,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